

[어휘 · 어법 수능기출 문제 I]
- 어휘의 사전적 의미 -

※ 아래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대체로 가격 수준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양이 조절된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요인과 비가격 요인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구매자 중심의 시장에서 가격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가격 이외에 판매점, 상표, 디자인, 신속한 배달과 수리, 광고 등과 같은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소비자의 선택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기업은 기업과 소비자와의 호혜적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점에서 기업은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 동안 기업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양립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기업들이 환경 문제나 사회 복지 등과 관련된 요인을 ㉠잘 살피지 않고 지나쳐 버렸다는 것이다.

1. 다음 중, 그 뜻이 ㉠으로 풀이될 수 있는 단어는?

- ① 경시(輕視)했다 ② 간과(看過)했다
- ③ 몰각(沒却)했다 ④ 무시(無視)했다
- ⑤ 묵과(默過)했다

그런데 동양인들이라고 해서 길에 대하여 모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학자들에게 길은 백성을 통치하는 도구, 즉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행정 통로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동양식, 전제 왕권 사회에서의 길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길가에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관방(關防)과 높은 문루를 세워야 하고, 도로 표지를 만들며 정자목(亭子木)도 심어야 했다. 그러나 도가(道家)들의 생각으로는 길이란 형식적이고 웅장할 필요가 없다. 좋은 길이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찾아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하며 자연 법칙에 ㉡굴곡이 있는 길이어야 한다. 이러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생각이 적절히 조화된 것이 동양 사회의 길이다.

2. ㉡ 속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단어는?

- ① 순응하는 ② 순종하는
- ③ 적응하는 ④ 동화하는
- ⑤ 복종하는

통인이 도장을 받아서 찍었다. ㉢그 뚜옥 뚜옥 하는 소리는 저 엄고(嚴鼓) 치는 소리와 같고, 그 찍어 놓은 풀은 마치 북두성이 세로 놓인 듯이 삼성(參星)이 가로 잘린 듯이 벌여 있다. 뒤를 이어서 호장(戶長)이 증서를 한번 읽어 끝내었다. 부자는 한참 머뭇하다가 말했다.

“양반이 겨우 요것뿐이란 말씀이유? 내가 듣기엔 양반 하던 신선이냐 다름없다더니, 정말 이것뿐이라면 너무도 억울하게 곡식만 몰수당한 것 이어유. 아무쪼록 좀 더 이롭게 고쳐 주시기유.”

3. ㉢에서 부자가 느낄 수 있는 느낌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장쾌(壯快)하다 ② 침중(沈重)하다
- ③ 냉혹(冷酷)하다 ④ 엄숙(嚴肅)하다
- ⑤ 은은(隱隱)하다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경제 법칙은 합리적인 사람이 많고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은 사회에 잘 적용되는 법칙이다. 따라서 아무리 경제 정책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의 자질이 떨어질 때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처방이 나왔다 하더라도 경제 동향에 미치는 ㉣민심의 흐름이나 경제 사회 분위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현실 사회에 그 처방을 물리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경제의 방향은 ㉣민심의 향방에 크게 좌우된다.

4. 문맥상 ㉣, ㉤에 공통적으로 바꾸어 넣을 수 있는 것은?

- ① 여파(餘波) ② 정세(政勢)
- ③ 사조(思潮) ④ 여론(輿論)
- ⑤ 풍문(風聞)

그러나 이론에 모순된 관찰 결과들이 증가하면 패러다임은 위기를 맞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런 관찰 결과들을 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들이 쏟아져 나와 서로 경합하는 ㉥혼돈(混沌)의 시기로 접어들게 한다. 이때에도 과학자들은 하나의 이론이 승리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립되기까지 기존의 패러다임을 포기하지 않는다.

5. ㉥의 사전적 의미는?

- ① 몹시 어수선하고 시끌벅적함.
- ② 무질서하게 뒤섞여 몹시 복잡함.
- ③ 뒤숭숭하고 수선스러워 어질어질함.
- ④ 뒤범벅이 되어 구별이 확실하지 않음.
- ⑤ 구별되어야 하는 것들이 같은 것으로 취급됨.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개인적인 선입견을 고집하는 것보다 더 큰 장애는 없다. 친숙하게 알고 있는 주제를 전혀 예기치 못한 일탈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그림을 대했을 때 사람들은 흔히 그 그림이 정확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곤 한다. 성격의 내용을 그린 그림의 경우에서도 이런 비난의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우리에게 낯익은 그리스도상이 과거의 미술가들이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형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러한 전통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것은 신에 대한 불경(不敬)이라고 생각한다.

6. ㉦을 뜻하는 말은?

- ① 독단(獨斷) ② 아집(我執) ③ 애착(愛着)
- ④ 자만(自慢) ⑤ 집착(執着)

중구 영감은 이를테면 예술가 기질 혹은 명장(明匠)의 기질이 농후한 사람이었다. 비록 어줍잖은 소목장이었으나 단순한 장인아치는 아니었다. 그가 만들어 낸 자개장이나 귀목장은 그 ㉧의장(意匠)이 특출하였고 견고하기로는 이를 테가 없었다. 죽히 자손에 물린 만한 귀물이었다. 그러나 성미가 까다로워서 뒷일꾼 하나 두지 않고 혼자 일방에 틀어박혀 하는 것이니 한 가지를 끝내는 데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7. ㉧의장(意匠)의 뜻으로 바른 것은?

- ① 공예품의 예술성
- ② 공예품을 만드는 솜씨
- ③ 공예품에 달린 장식(裝飾)
- ④ 공예품의 외적 모양이나 색채
- ⑤ 공예품에 깃든 장인(匠人) 정신

(가) 나는 이번 여름을 백두산 등척(登陟)으로써 의의 있게 보냈다고 할까요? 산악 순례의 정신이 ㉨피폐(疲弊)된 오늘에 있어서 또한 주위의 사정이 불여의(不如意)하게 하는 오늘에 있어서 교외의 조그마한 언덕에 올라가 본다는 것쯤도 용이한 일이 아니겠는데, 백두성산(白頭聖山)을 근배(謹拜)케 되었던 이번 기회야말로 내게는 다시없을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중략>

그러므로 금강과 같은 아기자기한 ㉩경개(景概) 속의 신비와 달라 백두는 '장려(壯麗)한 단조(單調)'를 뚫고 절정에 올라 웅대한 신비를 맛보는 데에 그 특수한 가치가 있다고나 할까요. 어쨌든 내 모든 기억 중에서는 가장 우뚝한 것으로 언제까지나 남아 있으리라 믿습니다.

—변영로의 '백두산 등척(白頭山登陟)',

제 자 : 아니요, 아무 소용도 없겠지요.
 소크라테스 :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사람은 유용한 것을 가지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제 자 :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 : 그러나 ㉠그저 사용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 올바른 사용법과 그릇된 사용법이 있을 테니까. 만약 목수가 연장을 잘못 쓴다면 재료를 버리게 되니 쓰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아닌가?
 제 자 : 그러면 목수가 연장을 올바르게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소크라테스 : 목수가 톱이나 도끼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악사가 연주를 잘하고, 조각가가 조각을 잘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할까? 자기 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닐까?
 제 자 : 바로 그렇군요. 옳은 말씀입니다.
 소크라테스 : 그렇다면 먼저 말한 재산이라든가 권력, 건강, 영예, 용기 따위도 그것이 있기만 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참된 지식에 의해 올바르게 사용되어야만 선한 것이며, 만약 그것을 무지(無知)가 지배한다면 오히려 나쁘지 않겠는가?

18. <보기>는 사전의 뜻풀이이다. ㉠'그저'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것은?

그저 ㉠ 변함없이 이제까지. ㉡ 비가 그저 내리고 있다. ㉢ ('그러나', '그러하다' 따위와 함께 쓰여) 별로 신기한 일 없이. ㉣ 요새는 그저 그렇습니다. ㉤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 ㉥ 그저 한번 해본 말이다. ㉦ (남을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뜻으로) 아닌 게 아니라 과연. ㉧ 내 그저 그럴 줄 알았지. ㉨ 공짜로. → 거저³. (방언).

- <보 기>
 ① ㉠ ② ㉢ ③ ㉤ ④ ㉥ ⑤ ㉦

부장 : 그렇습니다.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성문을 열고 항복하면, 낙랑왕 식구 세 사람은 모두 목숨을 살려 이곳에 모셔다가 왕비 마마 곁에서 사시게 작정이 된 일이 아니었습니까? 왕자님,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호동 : 어찌할 수 없는 일…….
 부장 : ㉠그렇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호동 : 누가 그것을 모르는가?
 부장 : 돌아가신 낙랑 공주에게 미안해서 ㉡그러십니까?
 호동 : …….

<중략>

호동 : 그 말을 자네한테 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인지 어쩐지 모르겠군.
 부장 : 무슨 말씀을. 또 놀라게 하시는데. 말씀하시기 다행이지요. 그랬길래 제가 왕자님께 간곡히 그 복을 공주님 손으로 찢게 하시라고 알려 드릴 수 있었지요. 그리고 저도 공주님께 ㉢그리하는 것이 왕자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공주님께 알려 드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호동 : 뭐, 자네가? 그런 말은 안 하지 않았는가?
 부장 : 네, 안 했지요. 그러나 잘못된 일이옵니까?
 호동 : …….

부장 : 왕자님 몰래 공주님께 말씀 드리는 것이 좋다고 여겨져서 ㉣그리한 것입니다.
 호동 : 오, 그래서…….
 부장 : 무슨 일이 있었더랬습니까?
 호동 : 복을 찢었다면서, 이 일은 왕자님 뜻을 묻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자꾸 다짐하더군.
 부장 : 열녀이십니다.
 호동 : 큰 고구려의 왕자가 한 여자의 손을 빌려 싸움에 이기는 것을 부끄러워할까 봐 ㉤그랬던 것이로군.
 부장 : 열녀이십니다.
 호동 : 그 열녀의 덕을 본 나는 무어가 되는가?
 부장 : 영웅이십니다.

호동 : 여자 힘을 빌린 영웅이라.
 -최인훈, 「등등 낙랑등」 -

19. ㉠~㉤ 중, 사전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할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무릎 꿇고 조아려 공손하기가 몸종과 다름없었지만, 처자 앞에서는 단란하고 즐거워 웃더라도 결코 치아를 내보인 일이 없게 근엄하되, 한내천 백사장에 강연장이 설치되면 뜨내기 장돌뱅이까지도 전을 걸어치울 정도로 수천 군민이 모여들게 마련이었으며, 산천이 들렸다 놓인다 싶게 불 뿜듯 웅변을 했는데, 그때마다 청중들로부터 천둥보다 더 우렁찬 환호와 박수갈채를 얻고 당신을 알던 모든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란 경칭을 받았던, 저만치 멀리로 건너다 보이며 어렵기만 한 사람이었다. 어디 그럴 법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남의 집 울안 출입에 노랫가락과 어깨춤…….

신기함과 경이로움을 주체하지 못해 나는 몹시 당황했지만 그러나 그런 거북스러움도 ㉠가셔지고 있었다. 명석 가장자리로 둘러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덩달아 함께 어울려 춤을 추기 시작했던 것이며, 그 속에는 작대기 막대기와 새끼 타래를 내던진 쌍례 아배와 복산 아배, 덕산이와 조패랭이가 섞인 채 누구보다도 흥겨워 몸부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20. ㉠에 '행동이나 사태, 감정 따위가 은근하게 조금씩 변화하는 모양'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넣는다고 할 때, 알맞은 것은?

- ① 가만가만 ② 너울너울 ③ 스멀스멀
 ④ 슬몃슬몃 ⑤ 어른어른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오보제를 사용하고, 장면들을 자유롭게 ㉡ 뒤엎어 놓음으로써 공연은 보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제의적(祭儀的), 시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해서 현대 공연 예술은 단순한 재현을 넘어 표현 주체의 행위와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언어이자, 기승전결이라는 우회로를 거치지 않은 현존의 언어가 된다. 이미지의 표면이 이야기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21. ㉡의 '뒤'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주례사에 뒤이어 축가가 있었습니다.
 ② 술래가 도망가는 아이들을 뒤쫓았다.
 ③ 배추에 갖은 양념을 뒤섞어 버무린다.
 ④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
 ⑤ 고향을 자꾸 뒤돌아보며 산마루를 넘었다.